

2020년 4월 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분기말 앞두고 낙폭 확대

US 스틸(+8.42%), 캐터필라(+3.88%) 등 인프라 관련주는 급등

### 미 증시 변화 요인: 인프라 법안, 코로나 19

미 증시는 나쁘지 않은 경제지표와 트럼프의 2 조 달러 인프라 법안 언급에 힘입어 장 중 1% 넘게 상승. 그러나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에 대한 비상상태 종료 시점은 누구도 모른다고 언급한 이후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결국 하락 전환. 이후 분기말을 앞두고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가 이어지며 낙폭이 확대(다우 -1.84%, 나스닥 -0.95%, S&P500 -1.60%, 러셀 2000 -0.54%)

트럼프가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2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도로, 교량 및 항공 체계 현대화, 광대역 통신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도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왔었음. 지난 2018 년 2 월 12 일 트럼프는 '미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 추진 개요'라는 제목으로 1 조 5 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공개. 당시 계획에는 ①자금 집행 계획 ②분야별 개선 지침 ③인허가 제도 개혁 ④고용창출 계획 등이 포함. 초반에는 민주당과 대립 속 법안 통과 여부에 회의적. 그러나 지난 2019 년 4 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트럼프와 2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해 통과 기대가 높았음. 물론 5 월 이후 트럼프 탄핵 이슈가 불거지자 관련 법안 통과는 뒤로 미뤄진 상태.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관련 법안을 언급한 것. 최근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오히려 공화당이 조심스러워 하는 경향이지만, 4 월 이후 논의 시작과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 만건, 뉴욕에서만 8 만건에 가까워지자 뉴욕주 주지사가 "현재의 비상 상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높이는 발언을 하자 미 증시는 결국 하락 전환. 특히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 속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가 유입되며 장 마감을 앞두고 하락폭을 키우는 경향을 보임. 이는 분기말 앞두고 일부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754.64	+2.19	홍콩항셍	23603.48	+1.85
KOSDAQ	569.07	+4.97	영국	5671.96	+1.95
DOW	21917.16	-1.84	독일	9935.84	+1.22
NASDAQ	7700.10	-0.95	프랑스	4396.12	+0.40
S&P 500	2584.59	-1.60	유로스톡스50	2786.90	+0.77
상하이종합	2750.30	+0.11	러시아	1014.44	+5.83
일본	18917.01	-0.88	이탈리아	17050.94	+1.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인프라 관련주 급등

트럼프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언급하자 US스틸(+8.42%)을 비롯해 AK스틸을 인수한 클리블랜드 클리프(+8.52%), 스틸 다이내믹(+3.25%) 등 철강업종이 급등했으며 프리포트 맥 모란(+8.17%), 누코어(+3.15%) 등 광산 업종, 캐터필라(+3.88%), 아스텍 인더(+7.34%) 등 기계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컨스트럭션 파트너(+10.03%)를 비롯해 코멘셜 메탈(+7.49%), 볼칸 머트리얼(+6.10%) 등 고속도로, 교량 건설 업종과 시멘트, 골재 관련 기업들도 급등했다.

한편, 코로나 영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자 온라인 관련 종목들인 알파벳(+1.36%), 페이스북(+0.51%), 아마존(-0.72%), MS(-1.57%), 넷플릭스(+1.22%) 등은 장 중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일부 매물 출회되며 혼조 양상을 보였다. 반면, 마이크론(-5.53%)은 재고 증가로 인해 D램 가격 회복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했으며 인텔(-2.47%) 등 여타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JP모건(-3.71%), BOA(-3.68%), 웰스파고(-4.08%)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급락했다. 리얼티 인컴(-5.74%), 사이몬 프로퍼티(-2.51%) 등 리츠 금융회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일부 소매 업체들이 제 시간에 임대료를 지불 할 수 없어 임대료 연기나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수입 감소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이어갔다.

보통 경기 침체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도 명품 소매 업체는 일반적인 소매 업체 보다 잘 견디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명품 가구 소매점인 RH(-14.86%)는 이날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한 결과를 내놓았으며, 향후 전망도 취소하자 급락했다. 물론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상회하는 등 수익성 개선이 이어졌으나 이는 운송 비용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해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78%	대형 가치주 ETF(IVE)	-1.78%
에너지섹터 ETF(OIH)	+2.81%	중형 가치주 ETF(IWS)	-1.79%
소매업체 ETF(XRT)	-0.80%	소형 가치주 ETF(IWN)	-0.58%
금융섹터 ETF(XLF)	-2.76%	대형 성장주 ETF(VUG)	-1.40%
기술섹터 ETF(XLK)	-1.87%	중형 성장주 ETF(IWP)	-1.9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4%	소형 성장주 ETF(IWO)	-0.72%
인터넷업체 ETF(FDN)	-1.25%	배당주 ETF(DVY)	-2.40%
리츠업체 ETF(XLRE)	-3.1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00%
주택건설업체 ETF(XHB)	-3.3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03%
바이오섹터 ETF(IBB)	-1.01%	미국 국채 ETF(IEF)	+0.18%
헬스케어 ETF(XLV)	-0.44%	하이일드 ETF(JNK)	-0.64%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35%
반도체 ETF(SMH)	-1.97%	Long/short ETF(BTAL)	-1.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매물 출회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8%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8%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574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1.25pt 하락한 234.7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7.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분기말을 앞두고 장 마감 직전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2% 넘게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 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PMI 가 양호한 결과를 내놓아 코로나 우려가 해소되면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미국 고용불안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전일 상승은 분기말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상승이었던 점을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일부 되돌림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 매물 출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가 2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련 언급을 했다. 관련 법안은 2019년 4월 민주당과 합의가 되었던 내용임을 감안 논의 후 통과 기대가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관련 종목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 미 증시는 뉴욕 주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재 부각 되며 하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매물 출회 요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개별 종목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장세 속 조정이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3월 시카고 PMI 는 전월(49.0) 보다 부진한 47.8 로 발표되었으나, 예상(40.0)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항공업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는 시장에서 놀라운 지표 결과로 해석 되었다.

3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132.6) 보다 부진한 120.0 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110.0)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기대 지수는 전월(108.1) 보다 크게 부진한 88.2 로 발표돼 향후 위축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표 관련 자료 수집은 3월 초 중반 코로나 확산 이전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 반납

국제유가는 전일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 통화에서 논의 되었던 원유시장 관련 내용에 힘입어 상승했다. 전일 전화 통화 이후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아 시장에 부담을 줬으나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모두 원유시장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같이 한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더 나아가 중국의 제조업지표가 개선세로 전환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사우디의 공급 증가 우려가 여전히 이어져 상승분은 일부 반납되었다.

달러화는 분기말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세 요인이었으며 이는 엔화의 강세를 이어가게 만들었다. 한편,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지표의 양호한 결과 또한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과 경제지표 개선과 인프라 투자라는 상승 요인이 충돌하며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다만, 이탈리아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율이 완만해졌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을 감안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며 장기물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3% 가까이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관련 발언으로 구리가 3% 넘게 강세를 보이는 등 상승했다.